

## 1. 개요

1. 일시 : 2015. 12. 05 (토) 16:00~18:00
2. 장소 : 한국고등교육재단 세미나실
3. 발표자 : 심명규 교수(Shanghai University)
4. 참석자

한민수 박사	(KIEP 간사)	김경훈 박사	(KIEP)
곽노선 교수	(서강대학교)	김배근 교수	(중앙대학교)
김성순 교수	(단국대학교)	김소영 교수	(서울대학교)
김영세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용진 교수	(아주대학교)
김윤정 교수	(서강대학교)	김진일 교수	(고려대학교)
김형석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신관호 교수	(고려대학교)
양두용 교수	(경희대학교)	이우현 교수	(경희대학교)
이철인 교수	(서울대학교)	정용승 교수	(경희대학교)
문성만 교수	(전북대학교)	김지섭 박사	(KDI)

## 5. 제 목

- "Imperfect intersectoral labor substitutability and welfare cost of business cycles"

## II.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섹터 사이의 노동의 이동이 불완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비즈니스 사이클과 관련하여 효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 비즈니스 사이클을 연구하는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두 개 부문을 가정하고 두 개 부문 사이 노동의 이동이 불완전함을 가정함.
  - 이런 모형 하에서 기존의 1개 부문의 신고전과 성장모형에 비교해서 비즈니스 사이클과 관련된 비효용이 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III. 주요 논의사항

- 산업별 임금의 차이와 산업별 임금의 comovement의 차이 중 어느 것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
- welfare cost 계산과 관련된 이슈
  - volatility effect와 mean effect를 분류할 때 어떤 것을 통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 mean effect를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형 대신에 aggregate labor를 고정하고 노동과 소비 사이의 substitutability를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
- Planner의 문제와 competitive equilibrium 중 어느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
- 모형과 데이터와의 차이에 대한 논의
  - 데이터에서는 output 뿐 아니라 aggregate labor의 변동 역시 상당함.

- intertemporal와 intratemporal 결정을 구분하여 mean effect를 구별해낼 경우 모형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 Lucas는 annual data를 사용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quarterly data를 사용했으므로 이에 따른 차이에 대한 논의
- 노동의 총공급량을 조정하는 것과 산업 간의 노동 이동의 불완전성 사이에 어느 것을 움직이는 것이 보다 어렵고 모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논의
- 총생산함수에 대한 충격이 아닌 각 산업별로 다른 충격을 고려했을 경우에 대한 논의
- 2개 산업을 도입하는 대신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을 도입하면 1개 산업 성장모형이 해결하지 못하는 intersectoral labor comovement problem을 해결 가능함.